

# 大田市立 圖書館

申 圭 秀

(大田市立圖書館 館長)

## 머 리 말

지난 8月30日 新築 大田市立圖書館 落成式을 舉行하였다. 이에 協會長任과 協會事務所長任 그리고 여러 圖書館人先輩諸賢들의 祝意에 對하여 畏濫되게도 이紙面을 通하여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그러록 여러분들이 他고장圖書館 發展에 깊은 觀心을 갖이게 됨은 그 人格이 高次의 旨을 認識할수있으며 圖書館人이 되고져 마음먹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호뭇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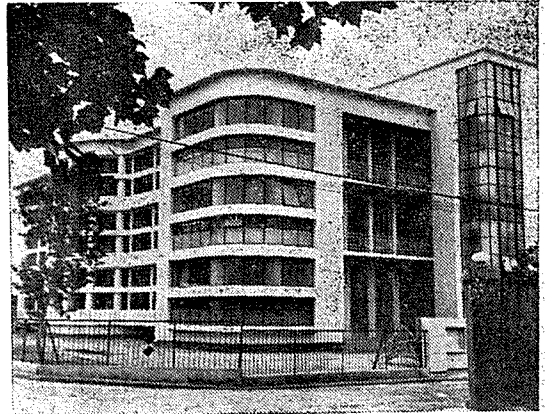
大田市立圖書館은 正常的으로 發足開館된 時日도 짧을뿐더러 所謂 運營을 擔當한 本人 역시 圖書館業務에 아직 어두어 올바른 運營을 다하지못하고 있는 큰 原因中의 하나가 된다. 이에 對하여는 協會則과 여러 圖書館人先輩諸賢들의 따뜻한 指導와 鞭撻의 뒷받침을 받게 됨으로 크게 걱정 되지않으나 當 圖書館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運營의 特性때문에 財政的 또는 人的 構成等 여러가지 制限을 받고있는 關係로 圖書館人의 意慾만으로는 참다운 運營을 꾀하기란 너무나도 隘路가 많다. 적어도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이러한 代表的인 韓國의 實情의 하나로 地方行政官廳의 財政事情의 貧困이 가장 큰 原因이되겠지만 또 하나의 問題는 上級管理者들의 圖書館 事業에 對한 觀心의 不足이 아닐까.

적어도 公共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욱 끊임없는 努力과 自己犧牲의 覺悟가 있어야 될줄 안다.

이러한 不利한 모든 條件의 장벽은 멀지않은 장래에 克服되어질것이 確實하여 韓國의 圖書館도 밝은날을 맞이하게 될날이 곧 닥쳐올것을 堪案하면서 微弱하기 이룰데 없는 當 大田市立圖書館運營의 一面을 주어진 機會에 감히 紹介하고 저 한다.

## 大田市立圖書館 沿革

近代的인 圖書館의 發達は 1901年 부터 始作되는데



〈圖書館 全景〉

이해에 韓國最初의 圖書館이 釜山에 세워지고 1909年에 大田市가 大田邑으로 있을때 大田邑圖書館이 세워져 歷史的으로보면 이미 半世紀前 일로서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후 事變으로 그줄이 끊어졌다가 道民의 誠金으로 이고장에 다시 零南圖書館(이圖書館은 忠南大學에서 運營한 關係로 大學圖書館으로의 구실을 主로 하였을)이라 하여 생겨나 自由黨時期에 겨우 그 命脈을 이어 가다가 5.16革命後 이것이 現大田放送局으로 賣却된後 61年 11月7日에서 舊市教育委員會廳舍를 引受하여 閱覽席 156席을 마련하고 忠南大學圖書館으로 부터 圖書 6,000卷을 貸與받아 大田市立圖書館으로서 發足開館하였다.

그後 1963年 8月8日 同建物 이 市立保健所로 轉用케 되어 不得已 舊米倉事務所를 빌려 臨時廳舍를 가지고 運營하다가 1964年 1月14日 또다시 大興洞所在 舊第九憲兵中隊廳舍(現大田市廳 뒷편)로 移轉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當圖書館은 가지말길을 걸어 오는 中 市民의 熱望을 받아드린 市當局은 新築廳舍를 建立할것을 63年度에 計劃하여 95年 8월에 竣工하여 落成式을 가진바 있으나 아직 內部施設이 未備되어 移轉을 못하고 있다.

## 新築 圖書館 現況

### 1. 落成經過

1963年 大田市는 新築圖書館을 建立할것을 三年次計劃으로하여 大田市 大興洞 25番地(現大田 放送局 뒷편) 市有地 400坪을 確保코 韓一公司 李基道氏에 依하여 着工하였는데 第1次年度 工事는 基礎工事完工을 目標로 63年 10月6日 着工하여 市費 4,130,000원 道費 100萬원 總工事費 5,130,000원으로 그해 12月30日 竣工하였고, 第2次年度 工事를 64年 9月17日 着工하고 堂屋貳層 完工을 目標로 總工事費 8,014,100원(그中道



〈閱覽室光景〉

費 100萬원포함)의 所要로 同年 10月20日 竣工했으며 第3次年度 工事を 65年4月1日 着工 나머지 보이랏 및 三層 內部等 完工을 目標로 道費 100萬원 市費 3,946,000원 總工事費 4,946,000원을 들여 65年 7月 29日에 延建坪 716坪의 現代式 三層콘크리트 建物로 아담하고 우람하게 新築廳舍가 完工됨으로서 지난 8月31日 新築落成式을 舉行하였다.

落成式에는 500여명의 市民과 200여명의 各學校 代表 및 軍樂隊 女學校 合唱團이 參加 하였고 내빈들 중에는 特히 忠南出身國會議員 金鍾泌 金龍泰 吉在號 議員等外 11명의 國會議員이 參席하여 더욱 盛大한 式을 가질수 있었다.

더욱이 落成式後 新築廳舍屋上에서 內外 貴賓 300여명이 參席한 작별 파—티를 갖어 이식典은 더욱 意義 있는 雰圍氣가 되었다.

## · 2. 施設現況

### 가. 暖房 보이랏 施設

總工事費는 700萬원이 所要되는데 財源은 起債申請 承認을 얻어 現在 着工 段階에 놓여있어 今年 겨울은 充分히 暖房보이랏 施設을 利用할것 같다.

### 나. 藏書確保

現藏書 保有量은 10月現在 10,641卷의 그야말로 微弱한 數量을 갖고 있으며 더군다나 當圖書館創設開館時 教科書 같은類의 洋書 等 6,000卷을 貸與받은 것으로 그數는 거의 圖書의 機能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實用 價値있는 藏書數는 7千餘卷에 不過하여 가소로운 圖書保有實情이다. 이의 確保策으로서 當圖書館의 時急施設이 完備되는데로 3年度計劃으로 最少 限萬卷을 確保할것을 目標로 自體豫算 또는 寄贈 및 圖書募金運動을 展開하여 充當할것을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參考로 65年度 當圖書館 利用者 實績을 보면 總入館者 45,354名中 12,753名이 圖書貸出人員에 19,624卷의 圖書가 貸出 되었다.

### 다. 內部施設 및 備品現況

新築廳舍의 施設區分을 보면 1層에 整理室 12坪 兒童閱覽室 34坪에 48席 參考閱覽室 34坪, 第一書庫 18坪 圖書管理室 5坪 보이랏 및 축적실 其他 167坪으로 總 314坪이 되며, 2層에는 第一成人(女) 閱覽室 34坪에 96席 女學生 閱覽室 78坪에 192席 第二書庫 23坪 事務室 16坪 館長室 12坪 其他 70坪 總 201坪이 되며 3層에는 研究室 28坪에 18席 第二成人(男) 閱覽室 34坪에 96席 男學生 閱覽室 70坪에 144席 第三書庫 23坪 其他 31坪 總 201坪이 되어 모두 12室 3庫가 되고 座席數 726席이 될것이다. 現圖書館(舊館) 248坪에 5室 1庫로 224席에 對하여 建坪이 464坪 8室 2庫 482席이 增加되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에따른 問題點은 其間 當市가 新築建物工事費에 막대한 財源을 투자한 關係로 內部施設(집기)에 財源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內部備品(閱覽臺等 圖書館用品)의 未設備로 因하여 新築建物만 完工시켜놓고 아직 移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使用하고 있는 것은 남아서 新館에서는 使用이 不可能 하며 따라서 新館에 完全히 施設이 갖추어지려면 330餘萬원이 所要되며 그중에서 于先 移轉하기 爲한 時急備品額이 230餘萬원이 된다. 이 時急한 問題解決을 爲한 方法으로서, 이고장의 教育文化 發展에 貢獻할 公共圖書館의 重要性和 이의 育成發展에 對한 市民의 連帶義務感을 鼓吹하고 全市民의 自發的인 協助와 積極的인 參與를 얻어 內部施設費一部를 充當함으로써 新築圖書館의 開館을 促進시키고자 하는 것을 市行政諮問 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決定하고 其間 미디어를 통한 PR로 市民의 輿論을 喚起시킨다음, 于先 內部設置를 爲하여 8月11日 圖書館運營委員會가 發足되고 이에 教育界 言論界 文化界 商工業界等 各分野別 有志 11名이 常任委員이 되고 384名의 市內有志들이 贊助委員이 되었다. 이와같은 舉市的인 市民運動展開의 成果로 10餘日間에 研究用테이블 5臺, 6人用 閱覽臺 32臺, 兒童閱覽臺 1臺, 閱覽椅子 132脚 等이 自進喜捨에 依하여 들어 왔으며 그밖에 여러 篤志家들로부터 喜捨를 약속하여 展望이 매우 밝다. 앞으로 10月25日頃까지의 贊助施設과 부족하면 나머지는 市費로 備品을 充當하여 11月中 移轉開館할 豫定이다.

그리고 亞細亞財團에서 施設費로 236,000원을 증여할것을 約束해주어 當圖書館의 新築開館은 더욱 빨리 이루어 질것 같다.

이번 이러한 舉市的인 市民運動의 目的은 稀薄했던 圖書館事業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함으로서 機會에 圖書館 PR을 하고 市民의 現實的 內在的 必要에 依據하여 存立되는 圖書館發展은 곧 市民各者의 發展과 市民社

會의 發展과 直結된것이므로 이의 育成發展에 對하여는 連帶義務感을 가지도록 새로운 觀心을 불러 이르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로 圖書館運營의 將來로서는 매우 有益할것 같다.

### 3. 構 想

#### 가. 內部施設補完

地理적으로 보아 大田市는 靑工業 및 交通의 中心地로서 市勢의 擴張이 크게 豫見되어 지고 普遍的인 圖書館使命外에 地域社會特殊性에 알맞는 公共圖書館이어야 할것이므로 이에는 차임새 있는 施設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미 美麗하고 아담한 現代式 建物を 갖인 當圖書館으로서 이 建物에 맞는 備品을 具備해 놓아야 함은 勿論이지만 內部施設 구조에 있어서도 適應되어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미 紹介된 當圖書館의 現施設로서는 不足한點이 많으므로 앞으로 讀書座談會 研究發表會 討論會 등의 行事を 爲하여 集會室과 展示室을 마련 해야 되겠으며 公共의 性格에 適應하여 될수있으면 學生閱覽席을 줄여 婦人閱覽室等 一般 大衆을 爲主로한 閱覽席을 늘이고 郷土資料室을 마련하여 고장 固有의 文化를 保存할 예정이다. 그리고 언제 實現 될지는 모르나 開架式을 目的으로 하여 于先半開架式으로라도 하여 無料를 原則으로 하는 圖書館으로의 轉換을 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할것이며 圖書館資料도 具體的計劃下에 廣範圍하게 蒐集 하는 등 多樣한 圖書館으로서 구축해야 되겠다.

#### 나. 職員資質向上

훌륭한 施設의 圖書館에 對處하여 繼續적으로 館構成員의 資質向上을 시켜야 되겠다. 于先 司書職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其間 當圖書館의 發足 時期의 짧은 原因으로 해서 가장 原心的 問題이나 이에 손을 못대고 있었지만 今年 10月부터는 圖書館에서 끝까지 從事할 現職員을 圖書從事員으로서 만들기 爲하여 自體講習은 勿論 各種 司書講習會에 參加 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66年度에는 어떠한 手段을 강구해서 라도 司書職 TO를 確保할 것이다.

TO를 받는데의 한 理由로서의 예비로 이번 10月11日부터 있는 正司書資格取得過程講習會에 受講토록 現職員 二名을 出張 보냈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는 協會側의 各별한 後援이 있을것으로 믿는다.

#### 다. 多樣한 圖書館으로서의 指向

文明의 洪水時代라고 오늘날을 表現한다면 文明을 理解할수 있는 知識을 갖추어 文明에 適應할수 있는 內的資本을 落積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知識의 總本產이 되어질 當圖書館은 各界各層의 人士들 市民들의 集會所로서 文化센터의 機能을 發揮할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于先 文化의 行事を 모두 當圖書館에서 主管함으로써 文化人들의 集會場所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다음 政界人士라든가 文化人 學者 등 여러人士들이 다방을 찾아가 그 비싼 賃料을 앞에놓고 어색한 담소를 하는것 보다 圖書館을 集會場所로서 利用 하여 밝은 雰圍氣속에서 國事를 論하고 學門을 討論하고 施政을 研究하며 教養을 爲하여 함께 모이면 얼마나 신성하고 價値있는 것이 되겠는가 언제나 圖書館에 나오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연락할수 있게되고 이야기할수 있는 역할을 擔當할수 있도록함을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圖書館으로 당연히 해야할 移動文庫, 分館設置 視聽覺資料 購入等 여러가지 事業을 實現하여 과연 圖書館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지녀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 맺 는 말

以上 소개한 當圖書館運營의 一面은 어디까지나 意慾만으로는 實現되기 어려우며 根本적으로 財源의 問題와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지게 되고 따라서 이와같은 諸般現實의인 條件의 打開를 爲하여는 尙한 어려운 問題가 따른다고는 하겠으나 우리社會의 經濟的, 文化的 後進性을 하루빨리 克服하기 爲하여 圖書館이 지니는 바 그責任의 重大性을 깊이 絶感하고 圖書館人으로서 忍耐과 勇氣로서 부여된 任務를 다하여 先進諸國의 進歩된 文化思潮를 攝養하고 眞正한 意味에서의 철저한 奉仕理念을 “뜻”로한 地方圖書館으로서 名實相符한 이고장의 “文化의 센터”가 되고져 함은 또한 너무나도 攄白한 일이라 하겠다.

(29面에서 繼續)

는 그다지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本稿는 Hague 에 있는 NIDER (Nederlands Instituut voor Documentatie en Registratuur)의 Director M. Verhoef氏가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 14, No. 5, p. 193—96에 실은 “Librarianship and Documentati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